

한국 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

홍선스님 직지사 주지

시작하며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난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추진하던 일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가 꾸려져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 무렵 불교중앙박물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던 탓에 종단의 명예 의해 그 협의회에 참여하여 잠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도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안의 전문가 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그것은 해당 사찰은 물론 불교 교단과 국가적으로도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참여하여 힘을 보탤 수 있음은 소중한 경험이자 보람입니다. 저로서는 또 그것이 하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청하기도 했지만, 위원회에서는 저에게 힘에 넘치는 일을 한 가지 부과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

다. 상황에 밀려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일이 저에게 벅찬 과제임이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사찰 박물관에서 십 수 년 간 일한 경험 외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과 지식이라야 상식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어깨너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을 요령껏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리한 내용에 지나지 않아서 제 소견이라야 미미하기 짝이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산지가람 발생과 형성의 배경

1) 산지가람의 정의와 범주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산지가람’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토에 분포하는 모든 절-사찰을 그 입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지가람’과 ‘산지가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석굴사원’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찰을 이 세 범주 가운데 어느 하나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생각만큼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경계가 애매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당장 오늘 모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법주사는 ‘산지사찰’로 분류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평지사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산지가람’으로 부르자니 매

우 평탄한 대지 위에 수십 동 건물이 펼쳐진 절의 경관이 마음에 걸리고, ‘평지가람’이라고 하자니 우리가 알고 있는 황룡사나 정림사, 곧 도읍 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면서 정연한 가람 배치를 보였던 절들과 차이가 확연하여 그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불국사나 감은사터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절의 입지로 본다면 ‘산지가람’이 분명할 듯하고, 탑과 금당, 강당 등이 회랑에 감싸인 모습을 본다면 ‘평지가람’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지가람’이나 ‘산지가람’이라는 단어는 생각만큼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다소 애매한 용어입니다.

또 우리가 ‘산지가람’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는 절들이 과연 동일한 범주로 묶어도 상관없을 만큼 등질적인 걸까요? 가령 산 아래(山下)와 산자락 혹은 산중턱(山麓), 산 정상 가까운 곳(山頂)에 위치하는 절들이 규모, 성격, 형태 등에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사이의 차이가 ‘평지가람’과 ‘산지가람’의 차이만큼 크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산의 비슷한 지점, 곧 동일한 산자락이나 산중턱에 입지한다고 해서 그 밖의 조건까지 반드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똑같이 산자락에 위치하지만 절이 들어서는 지점의 경사도가 전혀 다른 두 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의 조영, 건물의 구성과 배치, 확장과 변모 등에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두 절의 형태와 경관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지가람’이라는 틀에 함께 묶인 절들도 막상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들이 너무도 달라 좀 더 세분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절이 들어선 위치에 따라 ‘산하사찰’ ‘산록사찰’ ‘산정사찰’ 등으로 나누고, 그 지점의 경사도에 따라 ‘평탄지 사찰’ ‘경사지 사찰’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예컨대 도읍 안의 평탄한 곳에 위치한 절과 도읍 근교의 구릉지에 세워진 절, 도읍을 멀리 벗어난 지방의 산중에 건립된 절들은 건립 주체, 건립 배경과 목적 등이 일치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절의 성격과 형태 또한 달랐던 것이 엄연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반영한 분류 기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여 말하면 ‘산지가람’ 혹은 ‘산지사찰’이나 ‘산사’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논의의 틀로 삼기에는 그리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저에게 산뜻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논의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7개 사찰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알맞은 용어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한계가 분명하긴 하지만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산지가람’이라는 용어를 ‘산지사찰’, ‘산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때 제가 이 글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범위와, 이 말에 상대되는 ‘평지가람’의 개념에 대해서는 소략한 대로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지가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절들입니다. 첫째 도읍 안의 평지에 입지할 것, 둘째 중문·탑·금당·강당·종루·경루·회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른바 ‘7당가람’이거나 그에 가까울 것, 셋째 그러한 건물들이 종횡의 중심축을 공유하며 정연한 기하학적 배치를 보일 것, 넷째 이런 건물들 외곽에 회랑이 감싸고 있을 것.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평지가람’의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의 도읍에 명멸했던 많은 사찰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한 뒤 건립한 10대 사찰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에 국가나 왕실에서 개경에 경영한 여러 사찰들도 이 범주에 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찰들은 일단 모두 ‘산지가람’의 일종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든 다양한 입지와 조건을 갖춘 많은 절들—도성 근교나 지방에

위치한 절, ‘산하사찰’·‘산록사찰’·‘산정사찰’, 그리고 ‘평탄지 사찰’과 ‘경사지 사찰’ 등이 모두 이 범위에 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석굴사원이나 마애불을 갖춘 사찰 또한 저는 ‘산지가람’의 또 다른 특수한 형태로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지가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기준이 애매해져 분류 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뚜렷한 방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의를 위한 잠정적 분류이므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에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지가람’이나 ‘평지가람’이라는 용어의 함의가 생각만큼 썩 명확한 것이 아님을 공유하고, 이를 대체 혹은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지가람’이라는 용어를 이제까지 말씀드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산지가람 발생과 형성, 전개의 배경

‘절’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틀림없이 산중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골기와 지붕 덮인 목조건축이 줄지어 늘어선 산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은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불교국가와는 많이 다른, 어쩌면 우리만의 상당히 특이한 양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절대다수 한국인들의 생활 터전이 되어버린 도시 안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관념이 우리 시대에 갑자기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경험과 생각이 누적된 결과임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사, 곧 산지가람은 언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어떤 양상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기에 한국인에게 사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각인된 걸까요? 또 그 발생과 형성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산지가람 발생과 형성의 원인 혹은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종다양한 요인들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 때로는 복합적·중층적으로, 또 때로는 어느 하나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작용하기도 하면서 발생하고 전개되어 온 산지가람의 형성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긴 하나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을 무릅쓰고 그것을 정리해 본다면 대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불교가 이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산악신앙이나 그와 연관된 신선사상, 혹은 왜소하고 유한한 인간에 비하면 한층 초월적이고 영원해 보이는 자연물을 외경하고 숭배하는 관념, 곧 자연숭배사상—오늘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바위신앙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입니다. 우리 국토는 70% 이상이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달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크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오를수록 자연의 지배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먼 과거에 산악을 외경하고 숭배하는 산악신앙이 사람들의 내면세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태백산에 신시를 열었다는 단군신화는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듯 고대인의 생각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던 산악신앙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양면성을 지닌 신념체계였습니다. 특히 고대국가 성립 이후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통합의 기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던 국가로서는 이렇게 양면성을 띤 산악신앙을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다룰 필요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신라에서 삼산三山과 오악五嶽을 설정하여 그곳에 국가 차원의 제사인 대사大祀와 중사中祀를 지내고, 그 밖에 일흔 두 군데 산을 정해 소사小祀를 지내도록 했던 것을 그 적절한 대응의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이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잎과 가지를 펼쳐가려던 불교 역시 당시의 통치자들이나 국가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또한 국가에서 그랬듯이 민중들의 내면에 굳게 자리잡고 있는 산악신앙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흡수하여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때 이를 실천할 아주 유효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산에 절을 지어 숭배의 대상을 자연스럽게 산악에서 불교로 유도, 대치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절이 하나 둘 산에 자리잡게 되고, 따라서 우리 민족이 불교 도래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산악신앙이 절을 산으로 부른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신선사상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선사상은 중국의 도가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고유의 믿음은 아닙니다만, 산악신앙과 결합하여 불교 도입 이전부터 이 땅에 상당히 견고하게 토대를 구축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신선사상과 불교는 조화롭게 공존하거나 결합을 꾀했던 듯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수련처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조성된 여러 마애불상을 보유한 일종의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단석산 신선사, 경주 남산의 대표적 마애불상의 하나인 상선암 마애여래좌상, 하계를 굽어보듯 높은 산정에 위치하고 있는 신선암 마애보살좌상, 경주의 서악이 되는 선도산 마애삼존불상 등은 벌써 그 이름에서부터 신선사상과의 관련성을 짙게 암시하고 있는 유물과 유적들로서, 산악신앙의 경우와 흡사하게 불교가 신선사상과 결합한 양상을 보여주는 유력한 실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이들의 위치를 보십시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들이 불교와 신선사상 결합의 산물이라면, 이 또한 절이 산에 입지하도록 만든 원인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숭배사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바위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교를 숭상했던 동아시아 삼국 가운데 유난히 바위에 새긴 부처님, 곧 마애불을 많이 조성한 국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새겨졌고, 아주 일부가 조선시대에 조성된 이들 마애불은 현존하는 것만도 200여 군데를 헤아릴 만큼 많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마애불을 중국이나 인도와 달리 지질상 화강암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석굴사원이 발달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조건에 맞추어 등장한 초보적인 형태의 석굴사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튼 마애불의 존재는 그 자리에, 또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었음을 증언하는 무언의 증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국토 곳곳의 바위에 불상을 새길 때, 그들은 그 행위를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부처님을 바위 밖의 어디에선가 모셔오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미 바위 안에 계신, 내재하고 있는 부처님을 찾아내는 일, 드러내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산악신앙이나 신선사상과 마찬가지로, 바위에 깃든 신성성을 경외하고 숭배하던 재래의 관념과 삼라만상에 불성이 숨 쉬고 있다는 불교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만나는 장면의 하나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바위신앙을 포함한 자연숭배사상 또한 절이 산으로 가게 만든 동기의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렇듯 산악신앙, 신선사상, 바위신앙 등 우리 조상들이 불교 유입 이전부터 내면화해 지니고 있던 정신세계를 산지가람 등장과 성립의 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정치·사회·군사적 필요를 산지가람 형성과 전개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볼지만, 불교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입장이나 목적만으로 이 땅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차돈의 순교가 잘 보여주듯이, 불교의 국가 공

인에는 강력한 국가적 동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신라만이 아니라 삼국 공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구려·백제·신라 세 나라는 공히 고대국가 성립 이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새로운 차원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 불교를 수용하였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황룡사나 미륵사 등 한 나라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도 수많은 절을 도성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 세우고 관리하면서 물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동일한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불교는 도입기뿐만 아니라 수용 이후에도 국가 또는 왕실과 귀족 등 지배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현저한 예로 화엄사상을 들 수 있음은 두루 알려진 일인데, 그러므로 화엄사상의 확산과 전파를 위해 지방 곳곳에 속속 등장한 이른바 화엄십찰은 오로지 종교적인 목적만으로 창건된 절들은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절들의 창건과 유지에는 국가 통치에 부합하는 모종의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화엄십찰에 그치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얼마든지 추정 가능합니다.

화엄십찰의 근본도량이자 이번 세계유산 등재 대상 사찰의 하나인 부석사의 경우는 정치적인 동기나 목적 이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도 있습니다. 꽤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어느 논문에서 소백산맥의 일부를 이루는 죽령에서 가까운 산중에 부석사를 세운 이유는 신라의 죽령 방어선 통제와 관련이 깊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이 부석사 창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고구려·백제·신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패권을 다투던 삼국시대에는 국경을 비롯한 군사적 요충지의 통제, 적정의 확보, 신속한 정보의 전달 등이 어떤 문제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이럴 때 삼국 공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 이와 같은 군사적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전진기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 효용성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만일 부석사를 그 시절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던 절로 볼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부석사에 그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와 비슷한 절이 세 나라 모두에 적지 않게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는지요.

또 있습니다. 당장 지난 6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안에는 어떤 절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누가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바로 산성수호사찰들이 있었고, 그곳에 승병들이 주둔하며 산성 방어에 임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만 그랬던가요? 북한산성에는 중흥사와 태고사를 위시하여 10군데도 넘는 산성수호사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둔했던 승병들의 편제와 활동 상황은 북한산성 수축의 책임자로서, 또 완성 이후 도총섭으로 30년 이상 산성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몸소 겪고 알게 된 사실들을 기록한 성능聖能스님의 《북한지北漢誌》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전쟁을 겪고 난 조선 조정에서 팔도에 흩어져 있던 산성 가운데 요긴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골라 산성을 수축하고 그 안에 수호사찰을 건립하여 승병을 주둔토록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듯 불교를 폄박했던 조선시대에조차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찰을 세우고 유지했으니, 불교가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 아래 융성했던 그 이전 시대야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전국 각지로 뻗어 있던 이런저런 교통로 상에 많은 역원이 존재했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院은 많은 경우 그 관리의 주체가 사찰이었고, 해당 사찰에서는 사역의 일부를 할애하여 용도에 맞는 건물과 시설을 갖추어 원을 운영했음도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법화경 사경 일곱 축이 고스란히 발굴된 칠층석탑이 있었던 개성 근교

의 남계원南溪院, 한양 삼각산의 홍제원弘濟院, 천안에 있던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의 홍경원弘慶院(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 충남 공주의 보통원普通院, 석굴사원에 모셨던 석불입상이 지금도 오가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는 하늘재 길목의 미륵대원彌勒大院 등등 그 저명한 예를 얼마든지 꼽을 수 있습니다. 1530년에 처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역사驛舍의 숫자가 549개인데 비해 원우院宇는 무려 1309곳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 원우의 대부분이 이미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대부분이 사찰에서 설치, 운영하던 것임을 감안한다면 고려시대에 얼마나 원의 기능이 활발했는지, 원의 운영에 절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을 운영하던 고려시대의 사찰은 절이 지닌 고유의 종교적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던 다목적 종교시설이었습니다. 이때 공적·사적 목적으로 오가던 여행객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하던 일을 비롯하여 원우를 갖춘 사찰에서 이루어지던 갖가지 비종교적인 활동은 분명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사찰이 일정 부분 대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국가의 사회적인 요구가 전국 각지의 교통과 통신상의 요지에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찰의 출현과 확산을 불러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몇몇 사례들—화엄십찰, 조선시대의 산성수호사찰, 고려시대의 원 운영 사찰 등이 국가의 정치·군사·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창건되고 유지되던 사찰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갖가지 비종교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해 출현하여 종교적인 활동과 비종교적 활동을 동시에 담당하던 사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국가의 정치·군사·사회적 필요, 기타 다종다양한 사회적 요구들 또한 산지가람 출현과 발전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선종의 유입과 정착을 산지가람 형성과 전개의 배경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종의 유입을 고려 후기 성리학의 수용이나 서세동점의 시대였던 이른바 개화기에 이 땅에 소개된 기독교사상의 보급에 필적하는,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우리나라 사상사의 대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교라는 틀 속에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선종이 처음 소개될 무렵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선종의 가르침은 그 사상적 바탕이나 펼치는 주장이 기존의 불교와는 양립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도 달랐습니다. ‘누구나 깨치면 부처’라는 선종의 외침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수직적 질서가 관철되고 있던 기성사회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불온하고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불교세력이나 지배계층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종은 처음 소개되던 당시에는 기성 교단과 지배층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정치적·문화적 중심지였던 서라벌이나 그에 가까운 지역에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앙의 정치적 공백을 비집고 경제력, 군사력을 키워가며 지방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던 호족들은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볼 때 선종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잘 일치하는 참신한 주장이었고, 자신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행동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국에 유학하여 선사상으로 무장한 선승들과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해 줄 새로운 사상을 대망하던 호족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서라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오지의 산중에 뒷날 구산선문 내지는 14산선문이라고 불리게 되는 선종사찰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며, 이들에 소속된 그 밖의 선종

사찰들도 곳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9세기 이후 이 땅에 정착한 선종은 마침내 하대 신라와 후삼국 시기를 이끄는 주도적인 사상으로 부상하게 되고, 호족들은 그 힘을 사상적 바탕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국가-고려를 건국합니다. 고려시대 이후 선종은 얼마간의 부침이 있기는 하였지만 언제나 불교를 이끄는 주도적인 흐름의 하나로 그 맥을 이어왔고, 그 점은 21세기를 경과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종의 등장과 지속은 우리나라 가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선종의 유입 이전에도 꾸준히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산지가람의 형성은 선종의 등장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선종 사찰들은 호족과의 결합에 의해 탄생하다 보니 지방의 깊은 산중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기도 하였지만, 명상이 가장 주요한 수행 방법인 선종으로서의 번잡한 도회를 벗어난 곳, 한적하고 고요한 산지가 도리어 선호하는 도량의 입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건 아래 출현하기 시작한 선종 사찰들은 인문지리적 환경과 입지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지세에 따른 건물의 배치, 가람의 구조, 각 건물의 기능, 전체적인 경관 등 모든 면에서 도읍의 평지에 터를 잡은 평지가람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자취가 한국의 산사-산지가람의 대표적 이미지를 구축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선종의 정착과 지속은 우리나라 산지가람 형성과 확산의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자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산지가람의 등장과 형성, 전개와 확산의 주요한 토대이자 배경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풍수사상입니다. 풍수사상의 전래와 보급은 방금 언급한 선종의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풍수사상은 한대에 이미 틀이 잡혀 당대에는 크게 성행하고 송대에 절정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불교의 전파 시기나 그에서 멀지 않은 즈음에 도입되어 활용되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층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는 9세기 이후이고, 그것은 선승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중국에 유학했던 선승들은 선종의 가르침은 물론 그 무렵 중국에서 불교와 결합되어 크게 유행하던 풍수사상을 함께 익혀 돌아왔고, 그것을 먼저 자신들 활동의 토대가 되는 선종 사찰의 택지에 적용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선보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풍수사상이 그 무렵의 지식인과 지방의 호족세력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선승들의 이러한 활동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도선스님(827~898)입니다.

통일신라 말의 선승인 도선스님은 신라의 몰락기이자 고려의 태동기였던 시대에 불교와 풍수라는 두 사상을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사상을 창안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한 전환기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풍수사상에 바탕을 둔 그의 국토사상 및 공간이론은 비보사상과 그 실천적 방책인 사탑비보설로 요약됩니다. 일종의 국토 균형발전 이론으로 해석되는 그의 사상은 왕건의 고려 조정에 의해 전격적으로 채택됩니다. 태조 왕건은 그의 비보사상을 왕도인 개경을 보위하는 동시에 수도와 지방의 공간적 통합성을 이루며, 각 지방의 호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념적 장치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도선스님의 사탑비보설에 의거하여 국토의 지역체계 재편의 일환으로 전국의 사찰들을 정비, 개편하였으며, 도성 안은 물론 비보가 필요한 국토 요소요소에 절과 탑을 세워 취약한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고자 한 것은 그 뚜렷한 예증입니다. 이렇게 태조 왕건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는 상위 원리의 하나인 공간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된 도선스님의 풍수비보사상은 오백년 가까운 고려왕조 내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은 수많은 비보사찰들이 명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통일신라 후기에 선승들에 의해 도입되고 도선스님에 의해 실천적 이론으로 탈바꿈한 풍수사상 또한 산지가람 확산과 증대의 주된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산지가람 등장과 존속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조선의 억불정책입니다. 조선은 성리학 이념을 사상적 바탕이자 운영 원리로 건국된 유교국가였습니다. 고려 말기의 어지러움을 몸소 겪은 조선 건국 핵심세력의 눈으로 볼 때 불교는 존재이유를 찾기 어려운 무가치하고 해로운 종교였습니다. 그 점은 성리학으로 무장하여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통치를 담당했던 지배세력-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현실로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교에 대한 통제와 부정과 억압이었습니다. 다양한 종파들은 강제로 통·폐합되었고, 수많은 사찰이 폐사되거나 그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승려들의 출가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해 심지어 도성 출입조차 금지 당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한 이래 한 번도 사상적 주도권을 잃어본 적이 없던 불교와 불교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참혹한 상황의 전개였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과 연명을 위해서도 변화한 도회를 떠나 조금이라도 국가의 힘이 덜 미치는 곳을 찾아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피동적 강요에 의해서 산지에 가람을 개척하거나 이미 그곳에 있던 사찰들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런 상황에 얼마간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 극복에 불교계가 기여한 역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라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겨우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는 수준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허여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쟁으로 초토화된 옛 가람을 복구하고 조선적인 형식으로 재건하여 오늘에 물려준 것이 이 시기 불교와 불교인들이 담당했던 역사적 역할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의 억불정책이 산지가람의 확대와 발전에는 아닐지라도 존속과 유지에는 역설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조선의 억불정책을 산지가람 존속과 유지의 배경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차례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배경 혹은 요인 가운데 때로는 어느 하나가 주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 중층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산지가람은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대체적인 양상과 과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삼국·통일신라시대 산지가람의 발생과 전개

삼국시대 고구려·백제·신라 세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인던 무렵 처음 등장한 절들은 모두 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절들은 국가의 불교 공인과 동시에 국가에서 창건하고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무렵의 절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우리는 그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강의 모습조차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뒤에 조영되었지만 동일한 형식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절터가 여러 군데 발굴, 정비되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의 황룡사터, 익산의 미륵사터, 부여의 정림사터 등과 평양의 상오리 절터를 포함한 몇몇 절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절터들은 몇 가지 현저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삼국시대 세 나라의 도읍이나 그에 준하는 지역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절을 구성하는

모든 건물이 동일한 레벨의 평탄한 대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남문·중문·탑·금당·강당·경루·종루·회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절들은 공히 배치된 모든 건물의 외곽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회랑이 감싸고 있습니다. 건물의 배치가 대단히 질서정연하고 기하학적이어서 남북으로 중심축을 설정하고 보면 좌우가 엄정한 대칭을 이루며, 주요 건물과 시설물이 그 중심축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이들 사찰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간직한 절들을 우리는 평지가람으로 분류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지가람이 우리나라 초창기 사찰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평지가람은 불교의 도입기를 지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건립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평지가람에 대응되는, 오늘 논의의 주된 대상인 산지가람은 언제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변모를 겪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지가람은 평지가람보다 상당히 늦게 출현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워낙 초기 가람으로 평지가람이 널리 알려졌고, 그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비록 터만 남았을망정 우리 눈으로 비교적 손쉽게 그 자취를 실견할 수 있는 반면 산지가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짐작이 실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산지가람이 평지가람과 동시에 출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비슷하게, 큰 시간적 격차 없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도읍의 한가운데 이런저런 평지가람들이 차례로 들어설 때, 다른 한편에서도 여기저기 산지가람들이 하나 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평지가람에 바로 뒤따라 나타나기 시작한 산지가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숫자상으로는 평지가람을 능가하게 됩니다. 즉 5세기에는 평지가람에 비해 숫자가 적었던 산지가람이 6세기에 들어서면 이미 숫자에서 평지가람을 앞지르기 시작하며, 7세기에는 그 숫자가 월등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것이 우리나라 산지가람 발생기의 추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지가람 발생과 전개의 경로랄까, 그 양상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성격이 다른 두 흐름으로 수렴된다고 합니다. 평지가람이 산지에 이식되어 지형과 지세에 조용한 점진적 변화를 거쳐 전형적인 산지가람으로 정착되는 흐름이 그 하나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지의 작은 암자나 소규모 사찰에서 시작하여 점차 규모와 시설을 늘려가며 본격적인 산지가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흐름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마치 맞은편에서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출발한 양자가 중간에서 만나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 스타일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조금씩 서로를 닮아가다가 마침내 아주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여 흥미롭습니다. 이제 편의상 전자를 평지식 산지가람, 후자를 소찰식 산지가람으로 구분하여 발생과 변천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지식 산지가람은 도회의 평지가람이 평탄한 산지에 옮겨지는 형태로 출발합니다. 입지만 바뀌었을 뿐 평지가람의 모든 형태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변화가 좌향입니다. 평지가람은 한결같이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 이상의 경사가 있는 산지에서는 남향만을 고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지에 순응하여 지형과 지세가 허용하는 좌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 건물군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을 건립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연조건의 특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한 것이 산지가 허락하는 좌향대로 가람을 앉히는 변화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석축을 쌓아 터를 넓히고 그 위에 가람을 건립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산지에서

원하는 만큼의 넓은 평탄지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비교적 어렵지 않게 그 난점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석축을 쌓아 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련한 대지 위에 평지가람과 근사한 절을 세우는 일이 그런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굳이 절을 짓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석축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의 석축을 쌓아 얻을 수 있는 평지의 면적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석축을 쌓아 터를 마련할 때는 동일한 레벨에 모든 건물을 앉히는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 평지가람을 고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지에 석축을 쌓아 터를 마련하는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통일신라 중기 이후에는 아래와 위로 두 군데 석축을 쌓아 상·중·하 삼단의 대지를 마련한 뒤, 각각의 대지에 건물과 시설을 나누어 배치하는 삼단 구성 방식이 일반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삼단 구성 방식 가람이 이제 평지가람의 자취를 거의 털어버리고 한결 산지가람다워졌음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겠습니다.

설사 산지의 경사지에 석축을 쌓아 평평한 땅을 얻는다 해도 그 크기가 평지와 같을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이런 조건 아래 그곳에 평지가람 형식대로 절을 세우고자 한다면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규모의 축소, 일부 시설의 생략과 이동이나 용도의 변경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가람에서도 여전히 필수적인 시설이나 건물은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변화의 대상이 되어 단계적으로 변경·이동·생략 등의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평지식 산지가람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회랑입니다. 회랑은 평지가람에서는 그 상징이라 할 만치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만, 산지가람에서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랑은 가장 먼저 변형, 소멸의 과정을 밟아 갑니다. 건물군의 외곽 사면을 감싸고 있던 회랑의 변화는 뒷면에서부터 일어나, 사면회랑에서 뒷면이 사라진 삼면회랑이 나타나고, 이어서 정면의 남회랑만 남게 되는 과정을 보이다가 마침내 회랑이 사라진 가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동서 양 측면의 회랑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회랑만 잔존하는 단계에서 일반 건물의 형태로 축소, 변형되어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강당도 변화를 겪습니다. 원래 강당은 평지가람에서 금당 뒤에 위치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이런 원칙은 평지식 산지가람의 출발 단계에서는 지켜지지만, 곧이어 금당 앞으로 위치가 이동하거나 생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루와 경루 또한 변화를 비껴가지 못하는데, 보통 평지가람에서 금당을 에워싼 앞마당이나 뒷마당의 좌우 모서리에 있던 종루와 경루는 중문 좌우에 배치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지가람에서 대개 강당 뒤편 회랑 밖에 위치하던 승방은 금당 앞마당 좌우에 배치되거나 한 단 낮은 축대 아래쪽으로 옮겨집니다. 평지가람에서 중심을 이루던 탑의 위치에도 변동이 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상하로 두 군데 이상 석축을 쌓으면 모든 건조물을 동일한 레벨의 대지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평지가람에서는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탑과 금당의 분리가 일어나 금당은 윗단, 탑은 그 아랫단 대지에 나뉘어 배치되는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변화와 맞물리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변화도 있습니다. 평지가람에서 엄격히 지켜지던 대칭성의 약화 내지 상실도 그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문에도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문과 중문 두 개의 문을 갖춘 평지가람의 형식이 산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어지지만, 남문이 회랑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별도의 전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변화는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정도 사격을 갖추고 있는 산지사찰에는 진입공간에 세 개의 문, 일주문과 천왕문 그리고 해탈문 혹은 불이문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 개의 문을 합쳐 삼문이라고 부르는데, 회랑에서 분리된 남문에 일주문만 추가되면 바로 이 삼문체제와 형식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문의 별도 전각화를 삼문체제의 단초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평지식 산지가람에서의 변화를 종합하면 대충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남향하여 경사진 산자락에 아래위로 두 군데 축대를 횡으로 쌓은 삼단 구성의 절터가 조감됩니다. 가장 아랫단에는 남문이 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는 앞쪽 한가운데 중문이 서있고, 중문 좌우로는 회랑이 연결되어 있거나 종루와 경루가 들어서 있으며, 그 뒤편으로는 가운데 솟은 탑을 중심으로 마당 좌우에 위치한 승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의 마지막 단에 금당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통일신라 중기 이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평지식 산지가람의 골격이었을 겁니다. 금방 떠올리셨겠지만, 이것은 이른바 산지중정형 또는 4동중정형 가람 배치에 근접한 형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직 누각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론적으로 통일신라 중기 이후에는 이미 산지중정형 또는 4동중정형 가람의 초기 형태가 틀이 잡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평지식 산지가람의 변화 양상을 짚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찰식 산지가람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찰식 산지가람은 개인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지은 초암이나 암자, 혹은 산지의 비좁은 경사지에 터를 마련한 소규모 사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재건, 확장, 이건 등의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인 사찰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됩니다. 대체로 이 무렵, 곧 발생기의 소찰식 산지가람은 경사지의 협소한 부지에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절이라든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불전과 승방 등 한두 동의 건물을 얹힌 형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람에는 그 무렵의 절이라든 당연히 있어야 할 탑이나 회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평지가람이나 평지식 산지가람과 가장 큰 차이이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람을 무탑식 사찰, 무회랑식 사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크게 보았을 때 이것이 삼국시대 소찰식 산지가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찰식 산지가람에서 회랑이 나타나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지만, 탑은 경우가 다릅니다. 7세기 전반을 넘어서면 이 형식의 산지가람에 탑이 건립되기 시작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는 크지 않은 규모의 석탑이 활발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찰식 산지가람에 석탑이 등장하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나라 석탑의 발생, 발전 추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결과 소찰식 산지가람도 삼국통일 이후에는 비로소 금당과 탑을 구비한 사찰, 흔히 말하는 당탑가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핵심 요소로 본다면 평지식 산지가람이 변화를 거쳐 비슷한 시기에 도달한 모습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지점에서 만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찰식 산지가람의 특수한 형태로 석굴·마애불사원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가람은 늦어도 6세기 초반에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굴은 선사시대 이래 주거, 제의와 관련이 깊은 곳이었고, 고대국가 단계까지는 국가적인 제의가 행해지기도 하던 장소였습니다. 불교 수용 이후 이런 동굴에 승려가 머물면서 수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윽고 그곳에 불상을 모셔 예배하고 신앙하거나 가까운 곳에 작은 절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쯤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연동굴이나 그에 가까운 석굴을 활용한 형태이긴 해도 이것이 석굴사원의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방불이나 마애불을 갖춘 가람은 6세기 중반을 넘어선 무렵 고

구려와 백제에서 처음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가장 오래된 사방불이 이 시기 옛 백제 지역에서 조성되었고, 마애불 역시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현존 최고最古의 작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석굴·마애불사원은 7세기를 넘어서면 주로 신라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방불은 문경의 사방불, 영주의 사방불, 남산 칠불암 사방불, 굴불사지 사방불 등으로 이어지면서, 목조건물 안에 사방불이 봉안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본격적인 산지의 불전 형식을 갖추어 가는 듯합니다. 석굴사원의 경우는 초기의 동굴 형태를 벗어나서 경주 남산의 감실마애불상처럼 깊은 감실을 마련한 감실형, 단석산 신선사와 같이 자연 석실 위에 지붕을 덮은 형식, 군위 삼존석굴 같은 석굴형, 석불사(석굴암)로 대표되는 축조석실, 골굴암처럼 한 곳에 여러 개의 석굴을 마련한 석굴군 형식 등 다양한 형식이 시도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과연 이러한 석굴·마애불사원을 동일한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일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평지가람이나 평지식 산지가람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발상과 토대 위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음은 분명하기에 그 대강의 양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삼국시대 불교 공인 이래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산지가람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양자의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지만 점차 두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밟아온 듯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쳐진 모습은 지금도 우리나라 산지가람의 일반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산지중정형가람의 초기 형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평지식 산지가람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점진적인 변모를 거듭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흐름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편에서 그런 변화가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의 지형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평지가람의 정형성을 간직하거나 그런 지향성이 강한 평지식 산지가람들 또한 꾸준히 건립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삼국과 통일신라의 왕도에는 평지가람이, 왕도를 벗어난 국토 곳곳에서는 평지가람의 정형성을 유지한 평지식 산지가람과 점차 산지의 지형과 지세에 적응해가는 평지식 산지가람, 그리고 소찰식 산지가람 등이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삼국과 통일신라 시기 우리나라 가람의 존재 양상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며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꼭 그렇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미처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주제를 선택할 때의 제 계획은 우리 불교사의 전 시기에 걸친 산지가람의 발생과 전개 양상을 시대를 나누어 거칠게나마 전부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대로라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우리나라 산지가람의 변천 양상을 더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음 생각의 절반만을 이행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저의 불성실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발표가 학술대회를 개최한 목적에 부합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추후 원고로나마 생각했던 후반부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고 부실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